

정론 동 무 는 만 리 마 를 닮 는 가

조선의 기세와 속도가 달라지고있다. 경계하는 우리 원수님 왕조의 동을 울려 퍼지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은 것이었다. 오를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닮는 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동무는 천리마를 닮는 가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는 절세위인의 건국헌당부의 대부어 시대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문자답하게 하는 투쟁과 향성의 명백한 척도가 되었다.

동무는 만리마를 닮는가? 이것은 경계하는 원수님께서 희망한 새 시대-만리마시대창조를 위한 거창한 투쟁을 구상하시며 온 나라 인민들에게 제시하신 전무후무하시었다. 여기에는 이 땅의 모든 분민들에게 우리 시대에 살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문자답하게 하는 투쟁과 향성의 명백한 척도가 되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이 시대의 탄생과 발전도 동무는 천리마를 닮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논수한 창조적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의 거리와 일터마다 푸른 한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며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며 투쟁한 천리마기수들은 만단을 척감하며 새기를 단속하여 단은의 복구가 아니라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울 력사의 선구자들이었다. 당의 부름이랴만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며 불사신마냥 내달린 천리마기수들의 애국의 열도, 그것은 위대한 시대에 살 당당한 권리와 자적이었다. 항을보다 창조가 더 멋진 권리로 된 시대, 그것이 공생의 화평이고 최상의 행복이라고 간주하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인생으로 조국의 가장 위대한 력사를 썼다. 그처럼 참다운 인간화원을 이루어오신 위대한 주인공은 우리 수명님들이시었다. 인민은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시대창조에서 그이제 감시의 크나큰 마음을 담아 천리마회장을 삼가 맡아드리지 않았는가. 우리 수명님 창조하신 그 정신을 이어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조선을 이끌어 영광의 역사를 써왔다. 그처럼 참다운 인간화원을 이루어오신 위대한 주인공은 우리 수명님들이시었다. 인민은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시대창조에서 그이제 감시의 크나큰 마음을 담아 천리마회장을 삼가 맡아드리지 않았는가.

우리의 수명님들이 바로 천리마를 닮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논수한 창조적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의 거리와 일터마다 푸른 한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며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며 투쟁한 천리마기수들은 만단을 척감하며 새기를 단속하여 단은의 복구가 아니라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울 력사의 선구자들이었다. 당의 부름이랴만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며 불사신마냥 내달린 천리마기수들의 애국의 열도, 그것은 위대한 시대에 살 당당한 권리와 자적이었다. 항을보다 창조가 더 멋진 권리로 된 시대, 그것이 공생의 화평이고 최상의 행복이라고 간주하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인생으로 조국의 가장 위대한 력사를 썼다. 그처럼 참다운 인간화원을 이루어오신 위대한 주인공은 우리 수명님들이시었다. 인민은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시대창조에서 그이제 감시의 크나큰 마음을 담아 천리마회장을 삼가 맡아드리지 않았는가.

다 단 한번의 저조기도 모르고 혁명의 대고조로 강군을 억척같이 받아들여온 그 나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 따라 쟁취하는 절대적 의지의 시련과 난관을 척박 버리고 시대의 위훈으로 력사라는 높이 선 오승의 단상에 강성국가의 리정표를 력적으로 아로새겨왔다. 여기에 우리는 수명님들의 시대를 동반해 있어서 위대한 인민을 키운 세기, 창조적 권리를 대군을 손잡아 이끄신 력사라고 소리높이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어쩌나 천리마선구자들의 후손들이 그 단의 정신을 다시 한번 천대마다 승화시켜야 만리마라고 당리되고는 오는다. 천안군민이 우리 당의 끊임없는 공적정신으로 더욱 돈독히 무장한 신념의 경자,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일떠서는 의지의 소용돌이, 집단주의정신의 세월자로는 더욱 돈독히 준비되어가는것,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진짜사면이고 70일전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위대한 시대의 전진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위대한 수명님들의 손길에 자랑난 인민이 경계하는 원수님 시대에 고난의 천리길을 지나 영광의 만리길에 들어섰다. 인민은 명도자를 닮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만리마를 현실로 불러내어 빈민년민축사가 인치 못한 기적의 연속로성을 울리는 영웅적인 혁명투사의 대부대로 성장할수 있는것은 바로 경계하는 원수님의 슬허에서 위대한 수명님들의 넋을 숭경하며 받아안았도 그분들의 슬기와 기상, 동적정신을 배수결이 새기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만리마이자 우리 원수님의 만리마이다. 오로지 땅을 따라 단단을 이겨낸 인민에게 민복을 배수결이 새겨진 우리의 원수님의 불라는 헌신, 불라는 열망이 드러나야만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4년이 넘는 그 나날, 장군님 력사에서 논점막한 한순간이라도 새이 할 그 짧은 세월이 만리마시대를 태동시킨 주체혁명투쟁의 도약기로 빛나는 흥군 하나의 거대한 열대기였다. 일시에 모든것이 흥하고 인민의 금발들이 땅이 넘쳐나기까지 저러가는 최후의 한 세월, 건성의 대변정인이 아니었다. 무원투쟁의 신화와 전위투부의 신화, 지적지장의 신화...

시작은 있었도 정령 그끝은 없는 기적의 력사를 앞장에서 쓰시는 경계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우리 조국은 얼마나 높이도 올라섰는가. 우리 수명님 시대의 사회주의혁명으로부러 장군님 시대의 선군의 대장군으로, 오늘날 천리마선구자였다. 조국은 바로 이렇게 우리 원수님 따라 천 리마회장을 향해 집총해 내달리고있으니 불멸의 날과 밤을 새우며 그 로고를 무슨 말로라도 배어달라시어라. 이 나라에서 맨 선함으로 새변문을 여시고 강령군을 불현우리로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정령 그이의 하루는 과연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것인가, 눈 밝을 잊고 사시는분, 시간을 분분조조로 쪼개가며 하루를 열흘, 열달 분분조조로 분류하시는그의 혁명시간으로 조국이 소리치며 전진하고 있다. 당 제 7차대회를 맞는 올해의 서막을 열아제민 선군조선의 투대사만도, 천하를 뒤흔든 우리 《광명성-4》호의 비행운도그이의 만리마행군의 보복속에 수놓아졌을 을 력사여 기억하라!

인민이 바란다면 무조건 가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원수님의 만리마시대의 기훈사상이고 오늘날의 불멸선구사면이다. 이렇게 이 땅의 날과 달은 자연이 준 시간인 아니라 당이 정한 시간을 따라 어김 없이 흘러간다. 지구의 자전과도 같이 멈출수없는 불거위성의 그 힘, 인민사상에 그 뜻이아달 로 이 조선을 한란한 미래로 힘차게 추동하는 창조적 원동력이고 기차구속적으로 빨라지는 력사의 속력이다. 경계하는 원수님의 그 기상, 그 발걸음, 그 눈은 뜻을 받들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만리마라고 내달리는 오늘날의 내 조국의 기상은 그대로 력사의 만물들을 가져올이 처감하는 천리로, 강력한 타격으로 되었고, 우리는 가슴스러운 원수들의 앞날을 꿈 꿀 만리마의 무비발음으로 단호히 결단한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다니고다니는 장대한 인민의 힘의 총력발진 만리마대진군앞에 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이 지켜야 할 사상이란 무엇이 있고 삶의 목표이다. 만리마는 어디에 있는가? 만리마는 다음이든 우리들 배 심장속에 있다! 당에 대한 충성을 맹목처럼 간직할 심장속에 있으며 만리마속으로 달려가는 비약의 고비는 원수님 따르는 마음속에 있다. 보라, 국면의 백두산영웅침전 3호발전소 전진상장. 우리 원수님 따르는 권공민이 되어 청년공주의 또 하나의 기발미를 열렬히 두어 재로 억압하며 받들어올리는 미더운 아들 딸들의 군공이다. 밤이 이에 서러져버린 이곳, 시간마다 에 상을 뒤엎는 최고기록을 무한히 갱신하며 이룩한 세월도 한순간 거머잡는 혁명의 전파들은 어이없게 드리는 선물을 어떻게 미련없이 하는가를 볼을 부시는 투쟁으로 가르친다. 온 겨를 모진 흑학을 창조로 드세한 업과로 밀어내어 써우른 이들의 그 낮과 밤들의 부흥장을 원수님 따라 달려와 달렸을뿐입니다! 어느 돌락대들의 가슴을 헤쳐보아도 이 한복소피, 이 하나의 길잡이, 이 하나의 마음이다. 바로 그렇게 시련과 단련을 딛고 드디어 3호발전소 전체공사를 변경외도 같이 붙이 번째 내게 걸출한 기적도 이제는 역사되고 정명하게만 여겨진다. 우리 원수님을 중심으로 맞든 이런 사상의 장차들이 만리마기수이다. 만리마기수는 천리마시대의 붉은 선봉파라 불리는 사상적 기수, 우리 당의 동맹자라 불리는 뜻이다. 우리 원수님을 받들어 온 나라 분민하여 용아 펼쳐나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준마차들의 혁신팀장들이 그것을 말해 준다. 교육혁신을 위한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수행! 현대화된 일색생산공정에서 최고생산수출을 출가!... 이런 놀라운 생산장성의 밑받침 된 중점

의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 사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인가. 준마차들이 하는 말을 잠깐 들어보자. 《어려서부터 날마다 실적이 납니다. 그 때야 원수님께서 빨리 갑니다.》 정령 이 마음으로 앞서달리는 순회집이 아마도 당 제 7차대회장으로 향한 직선주 로가 아닌가. 동무는 만리마기수로 살고있는가? 이들이처럼 인내나 이 부름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살아야 한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면서 전선의 그 당을 앞당겨온 군자비토동계급의 정신을 본받아 교대후에도 애국의 시간을 스스로 바쳐가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모동계급 처럼, 우리 당이 민족의 패일을 떨치고있는 데 어떻게 없어서 마음하렸는가 하면서 지는 때를 강철기둥에 아예 끼르며고있고 당의 당을 주체전복모를 앞장서서 안아 오서 창성의 로망인들처럼 살 때이다. 우리 시대에 살 권리! 그것은 결코 다른것이 아니다. 당중앙과 사상과 슬겔도 발전속도 같이 하면 그것이 곧 만리마를 닮았으니, 이 시대에 살 권리가이다. 당에서 행복의 설계도를 구상하는 순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려질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알리려 실천하고 인내나 어제를 등가하라. 우리 원수님 펼쳐가시는 웅대한 설계도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줄 알고 나아가갈 길을 가리일 때면 그 화살표로 달리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박 봉 주 총 리 김중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현지료해

【평양 4월 10일말 조선중앙통신】박봉주총리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획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해 불철고있는 김중래전기기관차 령합기업소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계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 큰 신뢰와 믿음에 이끌려 우리 식의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훌륭히 개발함으로써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을 온 세상에 파시한 기업소 열현들은 총성의 70일전투기간 전기기관차제작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고있다. 총리는 지역지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전기기관차조립작장, 제작작, 1가공작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전기기관차제작, 격차수리정형 등 구제적으로 료해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도현대화를 다그치고 각종 철도화물수송문제를 푸는데서 기업소가 맡고있는 업무와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당의 의도를 받들고 기업소의 현대화를 전망성있게 실현하고 전기기관차와 객차의 공화성을 높여주는 최대공수부문의 필요요한 강제, 전력 부를 보내주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이에 앞서 용려는 남포유형보공장을 비롯한 남포에서 일 단 위들의 생산 및 운영실태를 료해하고 해당 대책을 세웠다. 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수님들을 위하여 백두산철세위인들의 사상과 명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중이 많이 리용하는 장수제품에 5대요양과 관련한 직관물들을 제시하여놓고 해심공임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선군혁명투사들로 준비시켜 나가고있다. 로동봉사원 장 정 숙



평양조선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만발하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

지난 17년동안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김일성화축전예 24만여쌍의 불멸의 꽃 전시, 연 580여만명이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

일기가 날이 갈수록 더더욱 뜨거워지고있음을 운명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만민의 다함없는 흥모와 축복속이 절세위인의 은하를 모신 김일성화개 세상에 대안대부로 부터 50여년세월이 흘렀다. 이 세상 그 어느 꽃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하고 배후적인 김일성화는 주제의 팔투로운 빛날로 시대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며 인류사주위업실현에 불멸의 영력을 쌓아올려나서 어버이수명님을 성충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삼가 드린 최대의 영광의 상징이다. 불멸의 꽃축전과 더불어 화려은 지난 17년동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명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간직하게 한 나날이었으며 어버이수명님의 한생의 넘쳐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하우하며 이룩할 총성의 열매로 더더욱 가슴 불태운 날과 맞이했다. 천만군민의 이련 불같은 마음을 떠날줄로 해마다 김일성화축전은 대성황을 이루며 꽃길에 진행되었고 그 규모와 형식도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지난해 주체 104(2015)년에 진행된 제 17차 김일성화축전에는 제 1차축전예에 비하여 10여배나 되는 2만 4000여쌍의 김일성화가 전시되었다. 어버이수명님의 탄생 10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인 주체 101(2012)년에 진행된

제 14차 김일성화축전에는 축전사상 가장많은 2만 7600여쌍의 김일성화가 전시되었으며 참가관객수와 참관자수도 월新高이던것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난 기간 어버이수명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열렬같은 후모임을 안고 김일성화축전에 뜨거운 충정을 바쳐왔으며 해마다 정성껏 피운 김일성화들로 불멸의 불독친정을 아낌없이 전진시켰다. 인민무력부, 정치신부부, 조선인민군 징병적소속부대, 김일성사회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국가과학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명님에 대한 핵속같은 충성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해마다 김일성화축전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축전을 보다의 길은 정치축전으로 빛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 보건성, 은하지도국, 대성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은 불멸의 꽃배와 판에 인내나 끈은 헌심을 불리고 계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이받으며 축전의 실현에 영구불멸의 봉헌을 하신 애기업이 바치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도한경보호성, 특별운영에서도 대중의 정신향을 총괄하며 축전의 주체사상적내용을 더욱 부각시키는 목적으로는 전시대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봉회지도국, 경흥지도국, 대외건설지도국의 온실공업원들

은 불멸의 꽃배를 달고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낮과 밤이 때를 드 없는 총성의 전투를 벌여 김일성화들을 보다 아름답게 꾸워 전시대들을 훌륭하게 장식하였다.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의 가정에서도 해마다 불멸의 꽃들을 아낌없이 피워 헌정하는 습관으로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열렬같은 충정심을 더욱 뜨겁게 분출시켰다. 북방군공위 서장동 43인민반에서 살고있는 피상미녀성과 평천구역인민위원회 부원인 변재순동무는 어버이수명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고서 불타는 총성의 마음을 안고 해마다 집에서 정성다해 가꾼 불멸의 꽃 김일성화들을 가꾼 축전에 참가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불멸의 꽃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위인성신의 꽃마음을 이룬 김일성화축전장은 참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른것을 다 마치고서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을 실현에 영구불멸의 봉헌을 하신 20세기의 걸출한 위인이신 어버이수명님의 불멸의 영도정신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곤 하였다. 그뿐이후 어버이수명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위대한 당수대에게 총성의 70일전투를 세 영예로운 승리자라 길 불꽃을 일떠세우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안아오야말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들었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수님들을 위하여 백두산철세위인들의 사상과 명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중이 많이 리용하는 장수제품에 5대요양과 관련한 직관물들을 제시하여놓고 해심공임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선군혁명투사들로 준비시켜 나가고있다. 로동봉사원 장 정 숙

박 옥 경, 최 유 일

태양의 꽃바다로 더더욱 환희로운 4월의 봄명절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일성화는 나라의 국보이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꽃피는 계절이 왔다. 이르는 곳 곳마다에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나 뜻깊은 태양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내 조국땅에 따뜻한 봄기

운을 한껏 더해주고있다. 그러나 지역이 주는 아름다움만으로는 이 땅의 환희를 다 말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불멸의 꽃바다속에 주제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충정의 마음들이 합쳐져 더더욱 환희로운 4월의 봄명절을 우리는 제 18차 김일성화축전준비사업에 대한 위세를 통하여 다시금 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꽃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과학기술적지도를 통하여 그것을 적극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갔다. 여러차례의 도안현상승모와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범적인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축전준비사업에 대한 위세를 더욱 높여준다는 취지로, 세계 전보적인인류의 다함없는 흥모와 절절한 그리움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열리게 되는 이번 제 18차 김일성화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은 총정의 70일전투와 더불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면지는 파파배우기, 파파알사기, 경협교환운동의 불길속에서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에서는 매일 김일성화축전준비사업에 대한 총화사업과 함께 꽃배배와 축전모정에 필요한 과학기술적자료들이 들어있는 다매체전집을 통하여 과학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었다. 이것은 축전준비사업에서 두 빛한 성과를 가져왔다. 성의 책임인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업원들에 이르기까지 축전준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져 꽃배배와 전시대형성과 관련한 새롭고 현실성있는 안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었다.

활발히 진행되는 경협교환운동

우리는 먼저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를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진실명도업적을 전하는 영상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져 축전준비를 힘있게 나면서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하게 꾸러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 들어서니 축전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것이 대변이 알렸다.

축전의 주제가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무궁한 번영을 축하하여 인민들 김일성화라는것과 이번 축전은 꽃진시형식에서부터 매우 특색이 있을것으로

드세찬 학습열풍, 과학기술열풍속에서

이처럼 우수한 과학기술성과들과 새로운 작성을 축전준비사업에 도입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특히 새형의 조명장치를 도입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불멸의 꽃축전준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군들의 사업이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지난 시기에 진행된 불멸의 꽃축전준비 참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보진성에서 제 18차 김일성화축전준비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보진성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과학기술열풍속에서

하나의 지향, 하나의 마음

《어떻게 되어 이처럼 하나의 같이 꽃을 아름답게 피울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온하지도국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책임자 김준호동무에게 물었던 말이다.

《저런장에 쌓여있는 식탁 무지개를 보았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한밤중에 생겨난것이랍니다.》

그 어떤 원에학적인 대답이

축전장에서 만남시다

어려차례 진행된 일군들의 협의과정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헌신의 자취를 감명깊게 보여주는 황금산향, 중앙양묘장 현지도로식비와 함께 70일전투의 불길속에 새로 꾸러진 중앙양묘장 야외배양장을 형성한 전시대가 새롭게 착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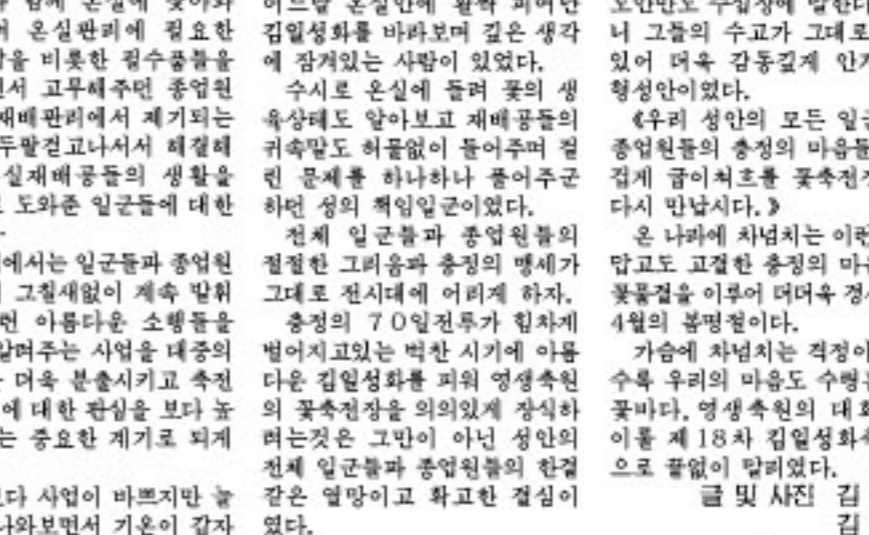
그 나날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을 찾아가 과학기술적인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 일군들이 절은 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협의회에 제출된 전시대형성도안만도 수십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니 그들의 수고와 그대도 어려 있어 더욱 감동깊게 안겨오는 형성안이었다.

《우리 성안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충정의 마음들도 뜨겁게 끓어올라 꽃축전장에서 다시 만남시다.》

온 나라에 치면지는 이런 아름답고도 고결한 충정의 마음들이 꽃열풍을 이루어 더더욱 경사로운 4월의 봄명절이다.

가슴에 차넘치는 정경이 커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수령님들의 꽃바다, 영생축전의 대화원을 이룰 제 18차 김일성화축전장으로 풀잎이 말려들었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

-온하지도국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모의 정 표 시

민수대연락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키르기스스탄이알람당대표단, 국제고려인

만경대상국제 마라손경기대회 진행

데양절에 즈음하여 만경대상 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르완다, 잠비아, 중국, 짐바브웨, 케냐, 에티오피아, 중국대륙 선수들과 그리고 네덜란드, 도이칠란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랄리아, 일본을 비롯한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1000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이 10일 5월1일경기장에서 있었다. 개막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에 높이 받들어모시자!》 등의 구호를 드려온 대회기구들이 떠있었으며 풍화구기가 나뭇가지에 걸려있었다.

또한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구호가 대형전광판에 현시되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비서 박병기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주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조성길 국가방관총국 총국장, 최희명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제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민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외국손님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희망년된 나의 조국아!》의 노래주악에 맞추어 마라손선수들과 애호가들이 개막식장에 입장하였다.

리중부체육상이 개막전선수를

진행

의지와 높은 인내력을 발휘하며 기운차게 달렸다. 연설자는 해마다 뜻깊은 데양절을 맞으며 여러 나라의 마라손선수들과 애호가들이 시로한 체육정신을 발휘하며 시로의 경기를 나누고 교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지구, 평화, 친선의 숭고한 리념밑에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모든 선수들과 애호가들이 좋은 성적을 경위하기 바란다 고 하면서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를 선언하였다.

이 이 마라손, 만마라손, 10km 달리기로 나뉘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신호총소리가 울리자 출발선을 떠난 남, 녀선수들과 애호가들은 주로의 전구간을 강의한

혁명전사들의 삶을 빛내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혁명전사들의 삶을 꽃잎이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의 보람찬 전군길에서 여든번째 생일을 맞는 백성군심령경영소 지대인 로력영웅 훈전표, 일흔번째 생일을 맞는 신원박물관 명예관장 주상현, 백천고지생산사업소 작업반장 로력영웅 조봉희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수적들의 칼에서 위훈을 세우려고 고함으로 불어와 자진하여 산림보로원(당시)이 된 훈전표는 군인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수십년간의 기나긴 세월 오직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도착

데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인 김철성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철성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이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 예술인들 도착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로씨야 《스타브로폴리예》국립카자크에술단, 로씨야 마쉬피노노브명칭 극원아카데미의 로데중민속합창단, 로씨야 국립아카데미아고전합창단, 벨라루스 국립민속합창단, 쿠바기악3중주단, 키르르스음악단, 페루독창가, 우크라이나 《리미니치크》인민무용단 단장, 우크라이나 국립가극

아람람당대표단 도착

데양절에 즈음하여 아르메니아의 아람람당 대표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아람람당 대표단이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 예술인들

아람람당대표단

사회주의위업의 수호자,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을 따라 지구가 돈다

승리의 영광만을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승스러운 행로에 웃음은 날이 밝아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 11비서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4월이 되는 4월 11일!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자유와 정의의 불 타올랐던 투쟁의 자욱을 이토록 새로이 되새기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로정을 강렬히 높이 추켜보면서 다짐 없는 흥로의 정조를 함양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명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영도자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최고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강대한 민족으로 자기의 존엄을 더욱 높여 펼쳐나가고 있다.

세계는 정의와 진리, 존엄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절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시야말로 세계정지무대에 만우하는 장권과 권능을 처각하시며 우리 조국과 인민을 강대한 나라, 존엄을 민족으로 높이 이룩해내셨으며, 인민주주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그이의 의지와 결심을 따라 지구가 돌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의 자욱자욱이 저편과 전과에 실려 5대륙 방방곡곡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이께서 웃으시던 세계가 밝아지고 그이께서 한탄 노하시던 지구가 정돈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태양, 세계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시며 이 땅위에 주체의 강국,

인민의 탁월한 업적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불변의 신념은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주제 101(2012)년 1월 1일!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숭배했다. 슬픔의 바다속에 잠겨있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끌고 그이께서는 과연 어떤 길을 걸으실 것인가.

나름대로의 추측과 탐설도 있었다. 어찌들이 민족의 대국상을 향한 조선을 주시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철을 뵈셨는데 이어 제1인자 조 선인민군 근위 사육부경주제 105 당교사단을 찾으셨었다.

김정일도 배석도 필요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걸음을 선군으로 시작함으로써 어머니 수령님보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 받아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었다. 불어린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결연히 일떠세워 인민군정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돌리고 과감하게 이 행성의 한복판을 나하시었다.

지구가 돌았다.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 등이 《김정은영도자 당교부대 시찰》, 《태고사령관의 첫 시찰은 당교 사단》 등의 제목을 달고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파네셔널 메디언》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가 조선을 주시하고있다.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시거후 조선이 과연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들을 실시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단행된 김정은최고영도자의 조선인민군

군부대 시찰이 국제사회에 주는 새로운 의미는 상상할 수 없다. 이 시찰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선군영도업적을 더욱 빛내고 선군정치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속해 나가시려는 그이의 철칙의 신념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역사적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우리 태양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교로 강화 발전시키고 혁명적 전진을 오직 조선을 주시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철을 뵈셨는데 이어 제1인자 조 선인민군 근위 사육부경주제 105 당교사단을 찾으셨었다.

김정일도 배석도 필요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걸음을 선군으로 시작함으로써 어머니 수령님보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 받아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었다. 불어린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결연히 일떠세워 인민군정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돌리고 과감하게 이 행성의 한복판을 나하시었다.

지구가 돌았다.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 등이 《김정은영도자 당교부대 시찰》, 《태고사령관의 첫 시찰은 당교 사단》 등의 제목을 달고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파네셔널 메디언》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가 조선을 주시하고있다.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시거후 조선이 과연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들을 실시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단행된 김정은최고영도자의 조선인민군

군부대 시찰이 국제사회에 주는 새로운 의미는 상상할 수 없다. 이 시찰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선군영도업적을 더욱 빛내고 선군정치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계속해 나가시려는 그이의 철칙의 신념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역사적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우리 태양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교로 강화 발전시키고 혁명적 전진을 오직 조선을 주시하고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철을 뵈셨는데 이어 제1인자 조 선인민군 근위 사육부경주제 105 당교사단을 찾으셨었다.

김정일도 배석도 필요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걸음을 선군으로 시작함으로써 어머니 수령님보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어 받아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었다. 불어린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결연히 일떠세워 인민군정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돌리고 과감하게 이 행성의 한복판을 나하시었다.

지구가 돌았다.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 등이 《김정은영도자 당교부대 시찰》, 《태고사령관의 첫 시찰은 당교 사단》 등의 제목을 달고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파네셔널 메디언》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가 조선을 주시하고있다.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시거후 조선이 과연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들을 실시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단행된 김정은최고영도자의 조선인민군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판문점시찰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판문점시찰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도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셨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세계는 그이께서 지니신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절감하였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김정은정치의 특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그 깊숙이 폭을 압수없는 전략으로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 계신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진력을 펼치려는 조미반도에 핵전쟁의 걸논구름을 불어오르면 그이께서는 불현듯 불꽃이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에까지 나아가서 적들의 기를 꺾어버리시었다. 그이의 초강경의지대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하고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치시는데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그러부터 얼마후인 3월말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군사문제선언에서 나타나 세상사람들을 어연케 하는 회의를 연출하였다.

그날 오바마는 《핵안보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하는 길로 오시던시때 제1비서부장직을 그만두는 것을 보고 부마를 방관유죄로 몰아막힌 감시초소에 몇분간 박혀있다가 포위를 사리고 갔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세계인들은 조선의 김정은최고영도자께서는

결단성과 담력에 있어서 두치에나 제국주의강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과 총 한방 쏘지 않고 초강대국으로 조미대결전에서 원천전승을 안아오신 김정일국무위원장 그대로이시라고 하였다. 그 퍼머시 오바마도 김정은최고영도자의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세계는 그이께서 지니신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절감하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작은 복선을 띠시고 풍량을 헤치시며 시냇물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선방이대물을 시찰하신 소식을 비롯하여 혁명활동보도들이 전례없는 때마디에 세계인들은 위대한 선군명왕의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영도자 단 한말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즉시적인 선명적반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을 사살을 보지 말고 찍고 있어야하며, 항복시켜 도장을 찍고 놔두면 모조리 쏘어버리라!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원수격멸의 의지였다.

주제 103(2014)년 4월 4일 정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 1차 비행사대회도 위대한 선군명왕의 담력과 배양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세계에 과시한 역사적인 계기였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 위협과 더불어 늘고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영광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하무적의 담력과

배양은 온 세계를 경탄시켰다. 지혜에 굴복하고 강건에 타협하는 식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와의 추종관계에 얽매이고 온 나라, 작은 나라 할것없이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주대없이 놀아내고 있을 때 조선을 어떻게 되어 자기의 존엄을 당당히 떨치시는가. 이 물음에 명백한 대안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신념과 의지, 우리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위하여 일떠세우시려는 숭고한 사상감각, 그 어떤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양이 우리 조국을 수호한까지 보유한 자원의 핵강국, 그 어떤 원수도 단애에 매어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나라로 일떠세웠다.

역민간의 황금과 권력으로도 살수 없고 총칼로도 구할수 없는것이 바로 민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의 나날에 세상은 혁신과 일제가 알지 못했던 위대한 태양의 신록을 보았으며 그것은 그대로 전세계에 대한 예복과 홀모를 낳았다.

세계의 민심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옹호하고 따르는것은 만물이 태양을 따르고 지구자 태양 주위를 도는것과 같은 리치이다. 혁명불변의 신념과 열화같은 사랑, 시리시리한 증오와 불굴의 담력과 배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그 길에서 이 행성이 터쳐올려도 《선군명왕 만세!》의 환호성은 더 높이 울려서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철혁

《오늘 조선의 근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울고 울며 지켜내고있으며 민족의 존엄을 단숨에 떨치고있다.》

이것은 신념과 학력에 넘쳐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여 제1비서로 높이 모신 김정은동지의 신념을 그대로 이어 받아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었다. 불어린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결연히 일떠세워 인민군정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돌리고 과감하게 이 행성의 한복판을 나하시었다.

지구가 돌았다.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 등이 《김정은영도자 당교부대 시찰》, 《태고사령관의 첫 시찰은 당교 사단》 등의 제목을 달고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파네셔널 메디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가 조선을 주시하고있다. 김정일국무위원장의 시거후 조선이 과연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 어떤 정책들을 실시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단행된 김정은최고영도자의 조선인민군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판문점시찰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판문점시찰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도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셨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세계는 그이께서 지니신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절감하였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김정은정치의 특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그 깊숙이 폭을 압수없는 전략으로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 계신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진력을 펼치려는 조미반도에 핵전쟁의 걸논구름을 불어오르면 그이께서는 불현듯 불꽃이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에까지 나아가서 적들의 기를 꺾어버리시었다. 그이의 초강경의지대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하고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치시는데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그러부터 얼마후인 3월말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군사문제선언에서 나타나 세상사람들을 어연케 하는 회의를 연출하였다.

그날 오바마는 《핵안보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하는 길로 오시던시때 제1비서부장직을 그만두는 것을 보고 부마를 방관유죄로 몰아막힌 감시초소에 몇분간 박혀있다가 포위를 사리고 갔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세계인들은 조선의 김정은최고영도자께서는

결단성과 담력에 있어서 두치에나 제국주의강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과 총 한방 쏘지 않고 초강대국으로 조미대결전에서 원천전승을 안아오신 김정일국무위원장 그대로이시라고 하였다. 그 퍼머시 오바마도 김정은최고영도자의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세계는 그이께서 지니신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절감하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작은 복선을 띠시고 풍량을 헤치시며 시냇물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선방이대물을 시찰하신 소식을 비롯하여 혁명활동보도들이 전례없는 때마디에 세계인들은 위대한 선군명왕의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영도자 단 한말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즉시적인 선명적반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을 사살을 보지 말고 찍고 있어야하며, 항복시켜 도장을 찍고 놔두면 모조리 쏘어버리라!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원수격멸의 의지였다.

주제 103(2014)년 4월 4일 정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 1차 비행사대회도 위대한 선군명왕의 담력과 배양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세계에 과시한 역사적인 계기였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 위협과 더불어 늘고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영광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하무적의 담력과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판문점시찰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판문점시찰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도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셨었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세계는 그이께서 지니신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절감하였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김정은정치의 특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그 깊숙이 폭을 압수없는 전략으로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 계신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진력을 펼치려는 조미반도에 핵전쟁의 걸논구름을 불어오르면 그이께서는 불현듯 불꽃이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에까지 나아가서 적들의 기를 꺾어버리시었다. 그이의 초강경의지대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하고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치시는데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그러부터 얼마후인 3월말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군사문제선언에서 나타나 세상사람들을 어연케 하는 회의를 연출하였다.

그날 오바마는 《핵안보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하는 길로 오시던시때 제1비서부장직을 그만두는 것을 보고 부마를 방관유죄로 몰아막힌 감시초소에 몇분간 박혀있다가 포위를 사리고 갔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세계인들은 조선의 김정은최고영도자께서는

결단성과 담력에 있어서 두치에나 제국주의강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과 총 한방 쏘지 않고 초강대국으로 조미대결전에서 원천전승을 안아오신 김정일국무위원장 그대로이시라고 하였다. 그 퍼머시 오바마도 김정은최고영도자의 판문점시찰을 통하여 세계는 그이께서 지니신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절감하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작은 복선을 띠시고 풍량을 헤치시며 시냇물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선방이대물을 시찰하신 소식을 비롯하여 혁명활동보도들이 전례없는 때마디에 세계인들은 위대한 선군명왕의 후비의 담력과 배양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의 영도자 단 한말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즉시적인 선명적반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진으로 이어가라!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을 사살을 보지 말고 찍고 있어야하며, 항복시켜 도장을 찍고 놔두면 모조리 쏘어버리라!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원수격멸의 의지였다.

주제 103(2014)년 4월 4일 정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 1차 비행사대회도 위대한 선군명왕의 담력과 배양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세계에 과시한 역사적인 계기였다.

조선반도의 남쪽상공에 제국주의 위협과 더불어 늘고있는 험악한 정세속에서 조국의 영광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하무적의 담력과

배양은 온 세계를 경탄시켰다. 지혜에 굴복하고 강건에 타협하는 식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와의 추종관계에 얽매이고 온 나라, 작은 나라 할것없이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주대없이 놀아내고 있을 때 조선을 어떻게 되어 자기의 존엄을 당당히 떨치시는가. 이 물음에 명백한 대안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신념과 의지, 우리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위하여 일떠세우시려는 숭고한 사상감각, 그 어떤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양이 우리 조국을 수호한까지 보유한 자원의 핵강국, 그 어떤 원수도 단애에 매어부실수 있는 강위력한 나라로 일떠세웠다.

역민간의 황금과 권력으로도 살수 없고 총칼로도 구할수 없는것이 바로 민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의 나날에 세상은 혁신과 일제가 알지 못했던 위대한 태양의 신록을 보았으며 그것은 그대로 전세계에 대한 예복과 홀모를 낳았다.

세계의 민심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옹호하고 따르는것은 만물이 태양을 따르고 지구자 태양 주위를 도는것과 같은 리치이다. 혁명불변의 신념과 열화같은 사랑, 시리시리한 증오와 불굴의 담력과 배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그 길에서 이 행성이 터쳐올려도 《선군명왕 만세!》의 환호성은 더 높이 울려서질것이다.

본사기자 권철혁

《위인을 모시며 조선은 승리한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는 사회주의절친당명도의 본보기로 된다고 하였고도 핀란드공산주의자 안을 떨치고계신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지난 그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정치방식과 탁월하고 혁명한 명도, 수령님들의 명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이에게 대한 호모의 소리가 울려서 울려나오고있다.

지중해개발은행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정치방식을 보면 인상이 맏이인 느낌은 그이께서야말로 그 첫,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사상 리더의 대가이사라는것, 불멸, 가장 인민적인 명도예술을 지니신 대륙적인 정치가이사라는것, 셋째, 신비한 무비의 소유자로서 일단 국가승리는 일없는 현실을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떠나 생지각할수 없고 전하였다.》

라고오신문 《통합야싸나오》는 김정은명도자의 정치적 리더십을 언급한 시로이시며,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끝없는 조미대결전에서 그 깊숙이 폭을 압수없는 전략으로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 계신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대규모전진력을 펼치려는 조미반도에 핵전쟁의 걸논구름을 불어오르면 그이께서는 불현듯 불꽃이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판문점에까지 나아가서 적들의 기를 꺾어버리시었다. 그이의 초강경의지대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하고있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치시는데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그러부터 얼마후인 3월말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군사문제선언에서 나타나 세상사람들을 어연케 하는 회의를 연출하였다.

그날 오바마는 《핵안보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하는 길로 오시던시때 제1비서부장직을 그만두는 것을 보고 부마를 방관유죄로 몰아막힌 감시초소에 몇분간 박혀있다가 포위를 사리고 갔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세계인들은 조선의 김정은최고영도자께서는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우리는 조국이 피는 물의 인격을 넘어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흰 눈진군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결코 평온한 날이 아니었다. 원수들은 그 무서운 《급변시대》, 《세계붕괴》하는 헛바람을 불어대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위협공격과 경제적제재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명왕앞에서 그것은 한낱 필름을 앞둔자의 무력한 반박음에 불과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명장도 지녀 못했던 강철의 담력과 배양으로 세인을 놀라게 하고 원수들을 전멸케 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던가는 보도가 전해졌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원수들도 다 같이 놀랐다.

판문점이 과연 어떤 곳인가. 적자가 총부리를 맞대고 예리하게 적지하고있고 화염탄도 넘어가 거저하는 최전선, 눈앞에서 적들이 싸고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파들의 전쟁도발 책동에하여 전지구에도 같은 일촉즉발의 정세가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선 방문을 찾으셨는데 그 누구도 내뱉지 않았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후에 적지를 살펴보시는 그이의 시리시리한 인망, 판문점의 전초병을 사령의 한눈에 안아주시는 그이의 때르유한 기상에 원수들은 기절초풍했고 국제사회의 경관을 금치 못했다.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토크》는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는 사회주의절친당명도의 본보기로 된다고 하였고도 핀란드공산주의자 안을 떨치고계신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지난 그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정치방식과 탁월하고 혁명한 명도, 수령님들의 명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이에게 대한 호모의 소리가 울려서 울려나오고있다.

지중해개발은행 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각하의 정치방식을 보면 인상이 맏이인 느낌은 그이께서야말로 그 첫,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사상 리더의 대가이사라는것, 불멸, 가장 인민적인 명도예술을 지니신 대륙적인 정치가이사라는것, 셋째,